

## 을미년 정초 산림기도 및 조상천도 지장기도



응진전



지장전

승보종찰 송광사에서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월 21일(음.정월 초삼일)부터 3월 5일(음.정월대보름)까지 응진전  
정초 산림기도와 지장전 지장기도를 봉행합니다.  
응진전 정초기도는 정월 초삼일부터 선원의 수좌스님들께서  
일주일간 철야로 기도를 올리며 기도 기간에는 응진전이 개방되어  
신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전에서는 강원 학인스님들이 동안거 해제일인 정월 보름까지  
철야로 기도를 올립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상 합장

### 응진전 철야기도

기간 2015년 2월 21일 ~ 2월 28일(음 1월 3일 ~ 1월 10일)

동참금 생축(가족 당) 10만원

### 지장전 철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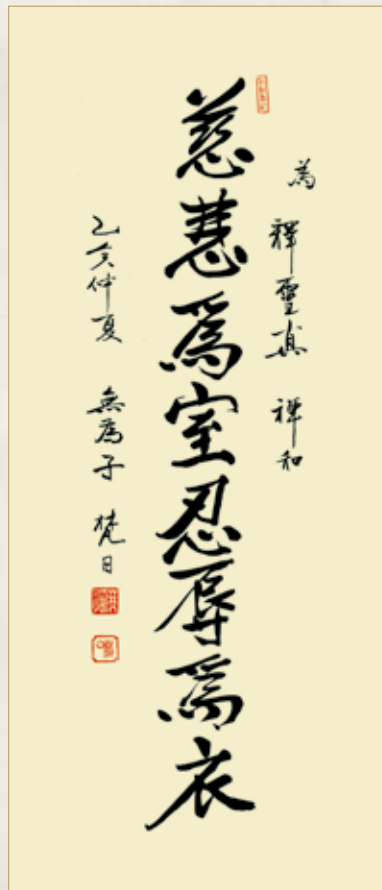
기간 2015년 2월 26일 ~ 3월 5일(음 1월 8일 ~ 1월 15일)

동참금 생축(가족 당) 10만원, 영가1위 1만원

문의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 팩스 061-755-5309



마음자리



慈悲爲室 忍辱爲衣 자비위실 인욕위의  
자비를 법당으로 삼고 인욕을 가사로 삼으라

大慈悲爲室 대자비위실 柔和忍辱衣 유화인욕의  
諸法空爲坐 제법공위좌 處此而說法 처차이설법

큰 자비를 법당으로 삼고  
인욕의 부드러운 가사를 입은 뒤  
모든 것이 공해진 자리에 앉아  
비로소 중생에게 법을 설하네.

승 보 종 찰 조 계 총 립

松 廣 寺

승 광 사

통권 제166호 2015년 1월호

주장자	다시 오는 오늘은 없다	2
목우현에서	양처럼 착하고 효도하는 불자	4
법성료	분별심分別心이 없어야 말심한 보살이다	6
신년특집_ 주지 무상스님 신년 특별 인터뷰	중노릇의 기본을 제대로 지킵시다	10
동화가 있는 서재	동화의 힘_ 거짓말하는 일기장	14
보림의 숲	깨달음이란 묵은 악습을 버리는 것	18
만평	배종훈의 생각, 한 조각	21
성보문화재를 찾아서	고흥 송광암	22
화보	김장울력 하던 날	24
산문 밖 정도세상	취학통지서	26
몽골불교미술 이야기	세계를 정복한 영웅들이 이룬 대몽골의 불교	28
불교상당	명상의 의미	31
고향수	다시 생각하는 '힐링'	34
포커스	2014, 달라진 송광사 이모저모	36
	송광사 노비문서, 세계적인 희귀자료	37
송광사 소식		38
인도성지순례기	롬비니 동산에 앉으니 모두가 선지식	40
소설 효봉	내가 말한 법, 그 모두 군더더기1	43
송광사 불사 동참자 및 인등회원 신규 명단		48



표지 새날아침 산사  
강행복\_ 불교목판화가

# 다시 오는 오늘은 없다

범일 보성 梵日 善成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 주장자를 치시고 이르시길

제행무상시생멸법 諸行無常是生滅法  
생멸멸이적멸위락 生滅滅已寂滅爲樂

제행무상,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행무상의 의미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처님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정암사에 가면 심적사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이 암자에 스님들 몇 분이 어렵사리 쌀 한두 말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 쌀을 먹으면서 일대사를 해결합시다.’ 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처럼 결제가 임박한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예고도 없이 암자를 찾아 왔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입이 늘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많이 와 찾아온 스님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기를 ‘우리가 아주 엄하게 경책하면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나가리라’ 생각하고, 노스님이 정진 중에 조금이라도 어깨가 기울면 보는 사람마다 장군죽비를 쳐서 엄하게 경책하였습니다.

노스님도 정진하는 대중스님들을 경책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의 경책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너무도 시원하게 경책해주는 노스님이 고마워 해제까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제가 가까워 오자, 노스님은 “아무개 스님은 어디 암자에 가면 좋은 토굴이 있으니 거기 가서 정진하면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을 거다.” “아무개 스님은 어디를 가게”라고 하며 각자 갈 곳을 일일이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내 토굴로 가야지’ 하며 마당으로 나가는 순간, 종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건 좋은 데서 공부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은 도둑놈 이상 가는 심보라고 했습니다. 후원에서 밥 짓고 죽 끓이고 불 때는 스님네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겨울에는 죽을 각오로 해보자는 그런 대결심으로 정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답도 비록 애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젊을 때 공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오늘이지 다시 오는 오늘은 없습니다. 대중스님들은 오직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주장자 삼타<sup>三打</sup> 후 좌하<sup>座下</sup>

# 양처럼 착하고 효도하는 불자

무상 無想 |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을미년<sup>乙未年</sup> 양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양은 성격이 순박하고 부드러워 양띠 해에는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양은 성격이 온화하여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동료간에 자리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효의 동물로 통합니다.

어미에게서 젖을 먹을 때 어린 양은 무릎을 구부리고 어미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양은 힘 없는 늙은 양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도 있습니다. 성격이 부드럽지만 일단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기도 합니다.

상형문자로 양羊은 맛있음[味], 아름다움[美], 상서로움[祥], 착함[善] 등 대부분 좋은 뜻을 지닌 글자로 쓰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초야에 묻혀 지내던 시절에 하루는 양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양을 잡으려 하자,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져나가 놀라서 깬습니다. 마음이 꺼림칙한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무학대사는 왕이 될 길몽이라며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한자로 양<sup>羊</sup>에서 뿔과 꼬리를 떼고 나면 왕<sup>王</sup>자만 남게 되니 임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성계는 왕이 되었고, 지금도 양 꿈은 길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양이 등장합니다.

<본생경>에서 양이 풀에 묻은 꿀의 달콤함을 탐내다가 산지기에게 잡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본 왕은 ‘조심성 많은 양이 적은 양의 꿀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하며 맛에 집착하는 욕심을 경계합니다.

남도의 큰 사찰인 백양사에도 양과 관련된 설화가 내려옵니다.

백암산 백양사의 옛 이름은 정도사였습니다. 백암산 약사암에서 정진하던 팔원<sup>八元</sup> 스님은 늘상 <법화경>을 독경했습니다. 어느 날 흰 양 한 마리가 나타나 독경 소리에 취한 듯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경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스님의 독경을 듣는 양의 숫자가 하나 둘 늘어가더니 흰 양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양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팔원 스님은 양을 불러들였다 해서 환양<sup>喚羊</sup> 선사라고 불렸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양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고, 효도하며, 경전을 가까이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분별심<sup>分別心</sup>이 없어야 발심한 보살이다

덕조 德祖 | 승광사 승가대학장

## 大乘正宗分 第三

佛告須菩提<sup>불고수보리</sup> 諸菩薩摩訶薩<sup>제보살마하살</sup> 應如是降伏其心<sup>응여시항복기심</sup>  
 所有一切衆生之類<sup>소유일체중생지류</sup> 若卵生<sup>약란생</sup> 若胎生<sup>약태생</sup> 若濕生<sup>약습생</sup>  
 若化生<sup>약화생</sup> 若有色<sup>약유색</sup> 若無色<sup>약무색</sup> 若有想<sup>약유상</sup> 若無想<sup>약무상</sup>  
 若非有想非無想<sup>약비유상비무상</sup> 我皆令入無餘涅槃<sup>아개영입무여열반</sup>  
 而滅度之<sup>이멸도지</sup>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sup>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생</sup>  
 實無衆生得滅度者<sup>실무중생득멸도자</sup> 何以故<sup>하이고</sup> 須菩提<sup>수보리</sup> 若菩薩<sup>약보살</sup>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sup>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sup> 卽非菩薩<sup>즉비보살</sup>

## 제3분 대승의 큰 가르침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받을지니라. 보살은 살아 있는 모든 중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나, 습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거나, 형상이 있는 것이거나,  
 형상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남김없이 다 부처되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했을지라도 그 어느 중생도 제도되는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라는 생각, ‘남’ 이라는 생각,  
 ‘중생’ 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 佛告須菩提<sup>불고수보리</sup> 諸菩薩摩訶薩<sup>제보살마하살</sup> 應如是降伏其心<sup>응여시항복기심</sup>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받을지니라.

수보리존자가 우리와 부처님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좋겠습  
 니까? 라고 여쭙니 ‘이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런데 ‘이와 같이<sup>應如是</sup>’ 부처가 되는 길이고, 마음을 항복 받는 법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  
 는 부분이다.

- 所有一切衆生之類<sup>소유일체중생지류</sup> 若卵生<sup>약란생</sup> 若胎生<sup>약태생</sup> 若濕生<sup>약습생</sup>  
 若化生<sup>약화생</sup> 若有色<sup>약유색</sup> 若無色<sup>약무색</sup> 若有想<sup>약유상</sup> 若無想<sup>약무상</sup>  
 若非有想非無想<sup>약비유상비무상</sup> 我皆令入無餘涅槃<sup>아개영입무여열반</sup>  
 而滅度之<sup>이멸도지</sup>

보살은 살아 있는 모든 중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나, 습한 곳  
 에서 생기는 것이거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것이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남김없이 다 부처되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부처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고, 마음을 항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담겨있다. 보살은 먼저 어떤 큰 원을 세워야 한다. 그 큰 원  
 이란 중생제도이다. 즉 “소유일체중생지류<sup>所有一切衆生之類</sup> ... 아개영입무여열반<sup>아개영입무여열반</sup> 이  
 멸도지<sup>이멸도지</sup> - 내가 남김없이 다 부처되는 열반<sup>無餘涅槃</sup>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이다. 내  
 가 모두 부처님이 들어가는 열반에 들어가도록 공부를 가르쳐 한 중생도 남김없이 부처  
 가 되게 하고 말겠다는 원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중생계에 광대무변한 구류중생  
 이 살고 있음을 예를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알에서 태어난 난생<sup>卵生</sup>과 태에서 태어난 태생<sup>胎生</sup>과, 습한 곳에서 태어  
 난 습생<sup>濕生</sup>과, 변화해서 태어난 화생<sup>化生</sup>이 있다. 난생은 조류인 새와 파충류 등이고, 태생  
 은 포유류 등인데 난생보다 고등 동물이 여기에 속한다. 습생은 주로 습하고 썩은 데서  
 나오는 세균, 벌레 등을, 화생은 곤충 중에 누에나 매미처럼 변신을 거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유색<sup>유색</sup>이란 형상을 갖고 있는 것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몸뚱이가 있는 중생세계를  
 말하고, 무색<sup>무색</sup>이란 정신만 있는 중생을 말한다. 육신의 세계를 벗어난 영혼의 세계, 천  
 상이나 귀신이 사는 그런 중생세계이다.

유상<sup>유상</sup>은 정신활동을 하고 있는 중생세계, 무상<sup>무상</sup>은 생각이 없는 천상 세계를 말  
 한다. 그러나 ‘무상<sup>무상</sup> - 아무 생각도 없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잠재의식까지 없는 것  
 은 아니다. 즉 현상계를 초월한 무색계<sup>無色界</sup>천<sup>天</sup>은 근본적인 번뇌, 잠재의식은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상이란 잠재의식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유상비무상<sup>非有想非無想</sup>의 중생 세계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인데, 있고 없고를 다 초월하고 나면 무<sup>無我</sup>의 세계가 된다. 무아의 세계는 선정<sup>禪定</sup>의 세계이다. 최고 선정의 세계에 가면 비상비상천<sup>非想非非想天</sup>이 있는데 이곳 하늘나라도 생사를 벗어난 열반의 세계가 아닌 구류중생의 한 세계인 중생세계이다.

이렇듯 구류중생<sup>九類眾生</sup>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중생세계이고, 이 밖에 말 할 수 없는 중생도 많다. 사람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고,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고, 업이 다르고, 삶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보면 팔만사천 종류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남김없이 다 부처되는 열반<sup>無餘涅槃</sup>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였다.

여기서 무여열반<sup>無餘涅槃</sup>이란 남음이 없는 열반을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멸도<sup>滅度</sup>했다는 의미는 제도<sup>濟度</sup>라는 말과 같은 뜻이긴 하지만 제도는 다 건너간다는 의미라면, 멸도<sup>滅度</sup>는 번뇌<sup>煩惱</sup>를 소멸하고 건너간다는 의미로 제도의 말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번뇌의 소멸, 온갖 고통이 사라진 상태, 각양각색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모든 것을 끝낸 상태를 멸도라고 할 수 있다.

●●●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sup>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생</sup>

實無衆生得滅度者<sup>실무중생득멸도자</sup>

이와 같이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했는지라도

그 어느 중생도 제도되는 중생은 없느니라.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무량무수무변<sup>無量無數無邊</sup>한 중생이 다 멸도에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로 인해 멸도를 얻은 중생은 하나도 없느니라.”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이없는 중생을 내가 제도 하고, 멸도 했으나 실로 한 것도 없고,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고 한 것은 화엄경 여래출현품<sup>如來出現品</sup>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중생을 살펴보니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래성불<sup>本來成佛</sup>이라고 했고,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가 그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은 중생들이 제도를 얻은 사람은 없다고 한 것은 스스로 다 이미 제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 제도를 하지 않아도 본래 제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상<sup>相</sup> 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 何以故<sup>하이고</sup> 須菩提<sup>수보리</sup> 若菩薩<sup>약보살</sup>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sup>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sup> 卽非菩薩<sup>즉비보살</sup>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라는 생각 · ‘남’ 이라는 생각 · ‘중생’ 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중지<sup>宗旨</sup>인 무상위종<sup>無相爲宗</sup>의 내용으로, 보살은 무상<sup>無相</sup>으로 으뜸으로 삼아야 하고, 만약 보살이... 했다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보살이 아니라는 의미로 내용이 대승정종분<sup>大乘正宗分</sup>에 밝히고 있다.

우리는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상이 많아서 중생놀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상<sup>相</sup>을 없애라고 말한다. 어떤 상인가? 아상<sup>我相</sup>-나라고 하는 생각, 인상<sup>人相</sup>-남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적인 의식으로 채워져 있는 에고<sup>ego</sup> 自我이다. 그리고 나와 상대적으로 남으로 구별하는 의식이 인상<sup>人相</sup>이다.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같은 부처인데 차별하고 분별하는 탓에 부처가 못되고 있다. 중생상<sup>衆生相</sup>은 중생이라는 열등의식을 말한다. 수자상<sup>壽者相</sup>은 목숨 수<sup>壽</sup>가 말하듯 나는 나이가 몇 살이라서... 라는 한계의식을 말한다. 영혼에 나이가 없는데 우리는 나이를 가지고 젊은 사람은 젊다는 이유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한계의식이다. 이런 네 가지 상<sup>相</sup>들은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서 부처가 부처 노릇 못하고 중생놀음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를 장애하고 있는 것은 모양<sup>相</sup>이다. 모양에 속지 말라. 모양 상<sup>相</sup>은 생각<sup>想</sup>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상은 형상이고, 생각은 아직 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살은 사상<sup>四相</sup>을 떠나야 부처가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 사상<sup>四相</sup>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너·중생과 한계의식만 떨어지면 참 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승정종분<sup>大乘正宗分</sup>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마 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받을지니라.” 했다. 그 마음이란 나라는 생각, 남이다 라는 생각, 중생이다 라는 생각, 오래 살고자 하는 수자상<sup>壽者相</sup>이다. 그 마음을 항복 받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중생을 교화했다는 생각과 상<sup>相</sup>이 있으면 분별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할 수 없고, 참된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중생은 다 제 잘난 맛에 살지만 대승보살과 진정한 행자<sup>行者</sup>는 상<sup>相</sup>없이 실천해야 발심한 보살이고 더 나아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덕조스님 1983년 송광사로 출가. 1984년 법정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음. 송광사 강원 졸업. 제월 통광스님으로부터 전강받고 범일 보성스님으로부터 전계받음. 대만 6년 유학 계율학 석사.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이사 및 서울 길상사 주지 역임. 송광사, 운문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현 송광사 승가대학장.

# 중노릇의 기본을 제대로 지킵시다

일 시: 2014년 12월 10일  
장 소: 송광사 목우헌  
인터뷰: 월간 『송광사』 편집장 중현, 사진: 김다빈



불교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본을 지키는 것, 정도를 지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중노릇의 기본은 재색(財色)을 멀리하고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탁마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방장스님같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중담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거뜰히 이겨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금강산림법회를 모두 회향하였습니다. 주지 소임을 맡으신 후로 3번째 금강산림법회를 원만히 잘 치르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처음에 금강산림법회를 시작했을 때는 신도분들이 많이 동참했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윤달이 있어 조금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종무원들이 열심히 한 게 제일 큰 힘이지요.

절집 속담에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이 힘을 합치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스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사중에서 열심히 하고 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강산림법회는 송광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송광사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그간 소임을 보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힘든 일이야 많지요, 같은 삼보종찰인 통도사 만해도 화엄산림법회 수입이 송광사 1년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림살이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강원 살림도 어렵고 학인들 수도 갈수록 줄어서, 나름대로 학인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서 방장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주지스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하시면서 스님께서서는 오히려 저희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송광사는 부처님 법답게만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방장스님께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림살이가 풍족하면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법하게 살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송광사의 저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본사 주지 회의에 가면 다른 본사 주지 스님들이 살림도 어렵고 대중도 많아서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대중이 많아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니까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대중이 많은 게 좋습니다. 해제해서 스님들이 다 떠나간 도량은 웬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해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는 시절, 방학을 하면 제일 먼저 암자에 계시는 노스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대중처소를 떠나지 마라. 대중이 절반 공부시킨다. 중노릇하면서 재색만 잘 관리하면 그걸로 중노릇 절반은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스님은 대중생활 안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대꾸하면, “나는 나이가 먹어서 대중생활을 하면 대중들에게 누를 끼칠 뿐이니 그런 것이야.”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송광사에서 대중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 말씀이 더욱 생각이 납니다.

저는 주지 소임 보는 것이 다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방장스님께 야단맞을 때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이런 세상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살면 이렇게 여법하게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노릇은 업장소멸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넉넉하면 오히려 업장만 쌓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송광사는 없으면 없는 데로 오직 여법하게 사는 곳입니다. 중노릇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송광사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중노릇의 기본을 지키자는 스님의 말씀은 비단 송광사 대중들만의 실천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처한 현실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데, 후학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지금이야 사찰에 주로 문화재들이 있어 정 부지원이 불교계에 많이 몰리지만 4,50년 후면 기독교나 천주교의 문화재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크고 작은 사찰에서 어린이법회를 했지만 지금은 큰 절 빼고는 어린이법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2,30대 사람들이 제 나이대가 되면 종교라는게 거의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시공부를 다 절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절에서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도시에 있는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죠.

제가 봉은사에 살 때, 빌딩 하나가 사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고법의 부장판사가 봉은사를 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이대로 지으면 절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절밥 먹고 공부한 사람인데 절에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되지요”라고 하며 사건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교에 호의적인 법조계, 정계, 관계 인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불교를 평범한 집단으로 볼 뿐 신심으로 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본을 지키는 것, 정도를 지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중노릇의 기본은 재색을 멀리하고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탁마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방장스님같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중담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거뜰히 이겨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신 뒤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송광사 진입로 공사’와 더불어 ‘조계산문 건립 불사’는 스님께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불사들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삼보사찰하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입니다. 해인사나 통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답게 산문이 웅장합니다. 그런데 송광사는 절안에 들어오면 웅장하고 멋지지만 정작 사찰 입구는 허술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로 오면서 ‘조계산문 건립’, ‘진입로 확장’, ‘16국사 진영 봉안’ 이 세 가지는 꼭 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입로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중앙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신도분들의 도움으로 산문 건립도 이미 설계와 실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한 ‘16국사 진영 봉안 불사’는 2016년 보조국사종재 때에 회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문 건립은 2015년 10월까지의 건물을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단청은 특성상 조금 시일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입로 확장’ 공사와 ‘조계산문 건립 불사’가 마무리되면 송광사 입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2015년 보조국사 종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주지로 취임하고 나서 아쉬웠던 것 중의 하



주지 무성스님은 ‘송광사 진입로 확장공사와 조계산문 건립 불사가 마무리 되면 송광사 입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가 바로 보조국사 종재입니다. 가까운 대흥사만 해도 서산대제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셨지만, 한국불교 전체를 놓고 본다면 타락해가는 불교를 정화하고 중흥하신 보조 스님의 업적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대흥사의 서산대제 때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다 포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국사종재는 집안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평년과 다르게 진행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순천시에서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행사지원도 약속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교대학 과정의 일환으로 인도 성지순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송광사 역사상 신도들의

해외성지순례는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인솔해서 가시는데요. 신도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고 하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겁니다. 다른데 가는 곳도 아니고 부처님 탄생하신 곳, 수행하신 곳, 부처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니 가시는 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송광사 승보종찰의 위상에 맞게 여법하게 참배를 잘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위기에 신심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가시는 분들이 첫발을 잘 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도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향수를 깊이 느끼고 돌아오겠습니다.

# 거짓말 하는 일기장

이일야 | 전북불교대학 연구처장

인문학은 자기 성찰학이다. 나와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공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성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자신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솔직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굴에 가면<sup>persona</sup>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마치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들이 짙은 화장을 지우고 맨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내면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어찌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면을 쓰고 사는 일에 익숙했던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장이다.

일기장은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일기장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검사를 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곳에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일

기장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다.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이들의 욕구에 충실히 맞추면서 가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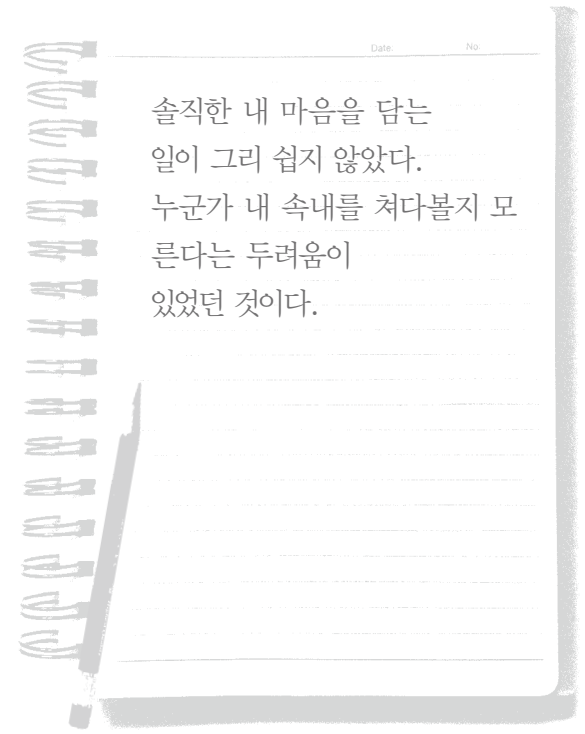
일기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도 나는 일기를 계속 썼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에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기장에 솔직하지 못했던 습관이 남아있을까? 솔직한 내 마음을 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다. 누군가 내 속내를 쳐다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일기 쓰는 일은 20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얼마 전 그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아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 기호<sup>sign</sup>란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일종의 표시와 같은 것이다. 기호에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의미들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빨간 신호등에는 건너가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먹구름은 비가 올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듯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콘<sup>icon</sup>이나 인덱스<sup>index</sup>, 상징<sup>symbol</sup> 등의 기호를 통해 대상이나 의미를 담아놓는다.

그런데 기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척 답답하거나 때로는 당황할 것이다. 나의 경우가 그랬다. 당시에는 내가 만든, 나만이 아는 기호를 통해 속내를 표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호를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읽고 또 읽어봐도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저히 알 수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게 어려운 기호를 사용한 이유는 누군가 내 일기장을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솔직해야 할 일기장에도 나는 가면을 쓰고 나와 만났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를 일이다. 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그래서 두터운 위장막을 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본과 권력, 넓은 평수의 아파트, 고가의 자동차와 같은 물질을 앞세우고 나 자신은 그 뒤에 숨어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삶이 행복하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면을 쓰고 사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화려하게 치장된 물질의 뒤에 숨어서 나 자신을 잃고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일 수는 없다. 이것은 곧 물질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 채 자신은 엑스트라로 전락한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상실, 인간 상실이라는 병에 시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문학은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학문이다. 비록 지금은 형편없고 초라한 인격으로 살고 있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면 얼마든지 삶의 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한 권의 소설이나 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아이들이 읽는 동화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동화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일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자 한다’

동화가 힘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몸집도 작고 물리적인 힘도 약해 보이지만, 그들은 성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솔직함과 당당함이라는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동화를 읽게 되면 때로는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며, 솔직하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쓰인 동화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할 것이다.

아이들의 힘을 가장 높이 평가한 인물을 뽑으려면 누가 뭐라 해도 니체가 될 것이다.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아이들의 정신을 가장 위대하게 그리고 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 아이가 그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낙타에서 사자와 아이와 같은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속내가 아닐까 싶다.

먼저 낙타는 인간이 등위에 물건을 실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걸어갈 뿐이다. 그렇게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를 찾기 위해 저항을 하게 되면 인간이 가만 두지 않는다. 아무런 저항 없이 기존의 가치체계를 순응하는 정신을 니체는 낙타에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sup>You should</sup>.’는 것뿐이다.

이에 반해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sup>will</sup>.’는 것을 대표하는 정신이다. 이는 기존의 가치체



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자에게 감히 ‘너는 짐을 싣고 어디로 가야 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 테니 말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낙타와 같은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저 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는 사자와 같은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사자보다도 위대하게 평가한 아이의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이의 특성인 솔직함과 당당함이다. 나라는 존재<sup>am</sup>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할 수 있을 때 당당한 삶은 가능할 것이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하고 당당하다. 어른은 사자 앞에 서면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포효를 하더라도 방긋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이다. 그것이 바로 아이가 갖고 있는 위대한 정신이다.

어린 시절 읽었던 안데르센의 동화 <별거벗은 임금님>을 기억할 것이다. 사기꾼 재단사에게 속아 별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이다. 신하들은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



람의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재단사의 말에 따라 왕이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다. 임금님이 벗은 몸으로 거리를 행진하고 있을 때 별거벗었다고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린 꼬마였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옷을 벗고 있는 임금님만 눈에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의 눈은 솔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어른들도 아주 오래 전에는 솔직하고 당당한 어린 아이였다. 그런데 고행과 같은 삶을 살면서 언젠가부터 자신을 속여야 했고 또한 자본과 권력, 물질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리고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 했고 값비싼 물건을 사는 일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라 스스로 위로해야만 했다. 이것이 가면 쓴다는 대가라면 너무 초라한 삶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니체가 말한 낙타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를 일이다. 자본과 권력, 물질이 시키는 대로 말이다.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사자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솔직함과 당당함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인문학적 자기 성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동화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화에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솔직하고 당당한 바탕을 회복시켜 주는 힘이 있다.

<동화가 있는 서재>는 동화를 통해 오늘의 우리 모습을 성찰해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일종의 동화와 인문학의 만남, 혹은 동화를 통한 인문학적 의미 찾기가 해도 좋을 것이다. 서재에 동화책 한 권 정도 꽂혀있다는 것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일 게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으니 말이다.

이제부터 동화와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을 시작하려 한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행을 마쳤을 때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 깨달음이란 묵은 악습을 버리는 것

일선스님 | 보림사 주지

선원 뜰앞 감나무엔 붉은 까치밥 하나가 떠오르는 새해 태양처럼 외로이 걸려 있습니다. 폭설이 밤사이에 내린 도량은 온통 은빛 세계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매서운 한파라고 하지만 한 생각 춥다는 몸의 감각을 여실히 살피니 한덩어리 불꽃이 붉게 타 오릅니다. 일체 대상을 돌이켜 하나의 은빛세계로 만들어 추위가 본래 없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겨울 안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해가 바뀌어도 항상 시끄럽지만 끝없이 일어나는 시비를 돌이키면 어느덧 한 바탕 은빛세계를 이루고 새날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고 어느덧 새해를 시작한다면 올미년은 언제나 좋은 시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선방에 스님들은 동안거 정진에 한창 선정이 무르익어가고 절마다 새해 달력을 나누며 광명의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가 한창입니다. 조사스님의 말씀에 익은 것은 설게하고 설은 것은 익게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요체로써 오래 묵어 익은 세속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인 수행을 길들여 업력을 행복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묵은 악습을 버리는 것이지 새로이 얻는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옛부터 스님들은 정진을 통해서 새해 벽두에 오래 묵은 습관이며 우울증과 같은 어두운 기운들을 벼랑 끝에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을 만나면 바로 알아차려서 본래 청정한 성품으로 뒤집어 회광반조를 합니다. 그러면 참마음이란 용광로가 드러나는데 여기에 일체 묵은 습관들을 녹여내고 새해니 묵은 해니 분별을 내려놓아 언제나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지난 해를 돌이켜 보려고 한때 치열하게 수련회를 이끌며 수행했던 그 섬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몽돌 해변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해조음을 듣노라니 지난 시절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갑니다. 해조음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일체 소리의 모음으로 세상의 갈등과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해조음이 들리는 바닷가에 상주하며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어루만지는 자비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익은 습관을 버리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심으로 매사에 살얼음을 밟듯이 철저히 정진을 해야겠다는 발원을 해 봅니다.

올미년은 푸른 양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색은 진취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으며 양은 성질이 온순하여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띠해의 사람은 단체생활과 성실하고 화합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편 양은 신을 위한 제물로 쓰였던 동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바친 송고한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세상살이는 주고 받는 행위를 통해서 은혜와 원한을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로운 관계가 원한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돌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심의 바탕에서 무주상의 보시를 실천해야 양변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한 양처럼 살고 싶다는 발원을 새해 벽두에 새겨 봅니다. 날마다 하늘에 양떼구름 흐르는 평화로운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선스님 1980년 송광사에서 법흥스님을 은사로 수계. 1987년 법어사에서 비구계 수지 후 10여 년 간 제방선원에서 정진. 중앙승가대 졸업. 거금도 송광암 주지, 금천선원장 역임. 현재 장흥 보림사 주지.



항상 처음처럼 일하는  
송도건설이 되겠습니다



# 宋都建設(株)

Song Do Construction Co., LTD.

토건 | 조경 | 문화재보수단청

전남 순천시 서면 못나들길 31

TEL 061. 755. 7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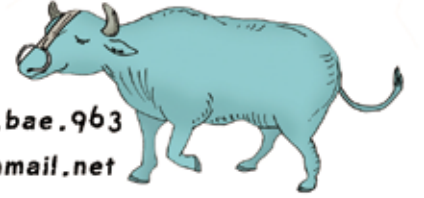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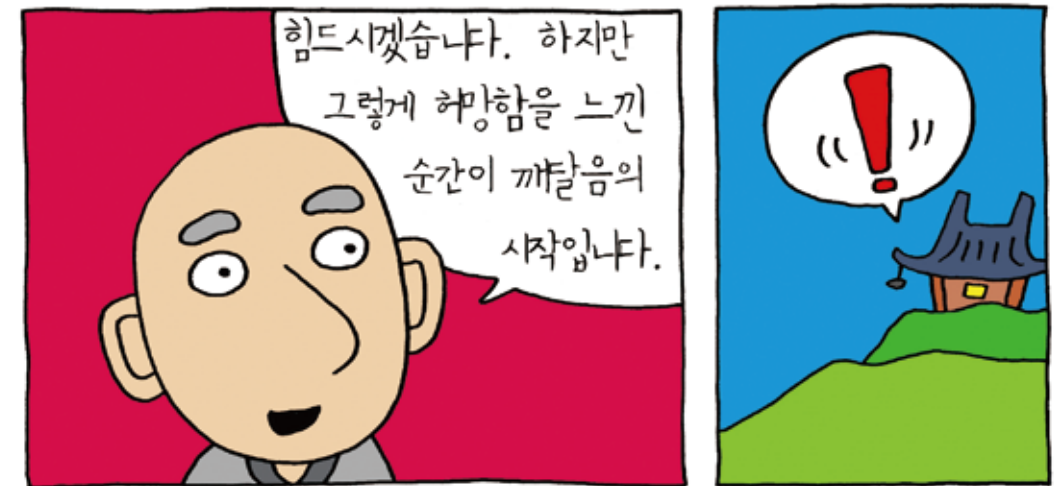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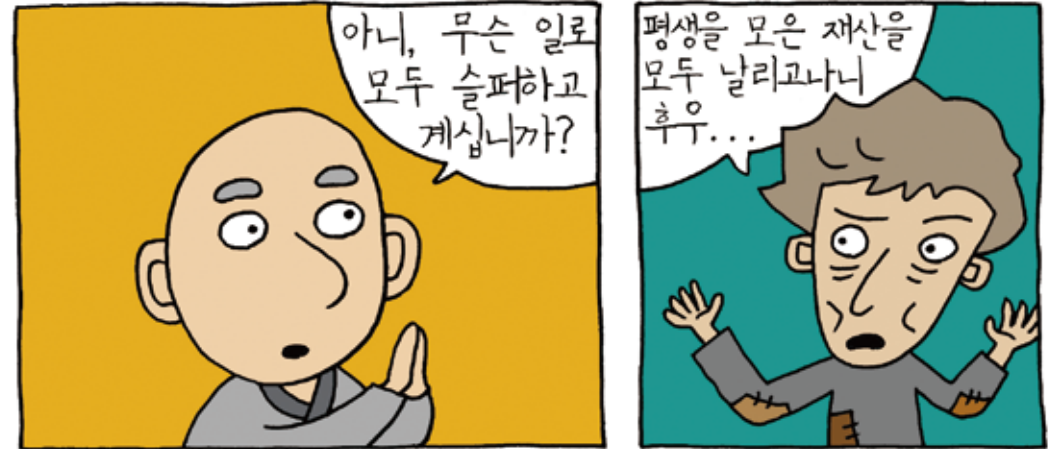
## 배종훈의 생각, 한 조각

<https://www.facebook.com/jh.bae.963>

[bjh4372@hanmail.net](mailto:bjh4372@hanmail.net)



제화



# 나무 새가 찾은 수행도량

## - 고흥 송광암

김일동 |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송광암은 고흥 녹동항과 연육교로 연결된 금산면 거금도 용두봉에 위치한다.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창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창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전해지는 송광암에 대한 기록은 근대에 정리·작성한 『금산송광암연혁<sup>錦山松廣庵沿革</sup>』과 1990년에 세운 『송광암9창기적비』에 남아 있다.

절의 창건 이후 두 세차례 중창을 거쳐 영조24년(1748)에 치찬장로<sup>致燦長老</sup>에 의해 4중창, 정조20년(1796)과 순조 6년(1806)에 양익<sup>良益</sup>스님이 5·6중창을 진행하였다. 철종 7년(1856)에 등천<sup>燈天</sup>·봉실<sup>奉實</sup>·이원<sup>理元</sup>스님 등이 7중창하였다. 1987년에는 범곡 원공스님의 아홉 번째 중창으로 법당과 요사를 늘려 지었다. 지눌스님께서 모후산에 올라 정혜결사를 수행할 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조각한 새 세 마리를 날려 보냈다. 한 마리는 송광사의 치락대(국사전 뒤편), 한 마리는 여수 금오도, 나머지 한 마리는 이곳 금산 송광암 자리에 앉아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터를 잡고 절을 창건하였다 전해진다.



극락전 아미타삼존불 (대세지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흥 송광암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80년에 조각승 '보해<sup>寶海</sup>'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작고 둥근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으며, 두 손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아미타불의 수인인 구름인을 결하고 있다. 또한 오른 발이 왼발 위로 올라가는 길상좌를 취하였다. 전체적인 비례가 조각승 '희장<sup>熙藏</sup>'의 작품과 닮았다. 특히 가부좌한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넓은 옷자락은 희장과 매우 흡사하여 두 조각승의 관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26년에 조각승 '하천<sup>夏天</sup>'에 의해 만들어진 불상이다. 하천은 색난의 조각승 집단 중 한 사람으로 그의 불상은 색난의 불상 모습을 많이 닮았다. 목조대세지보살상의 모습에서 약간 살이 오른 감이며, 그로 인해 좀 더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다. 고흥 송광암의 불상은 본존불과 협시보살상이 모두 각기 다른 조각승에 의하여 만들어져 그 특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각승의 전통이 계승되어 내려오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1709년에 조각승 '색난<sup>色難</sup>'이 제작한 불상이다. 비교적 가름한 얼굴에 열은 미소를 지니고 있다. 상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얼굴에 비하여 보관이 커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어깨가 작은 편이지만 그 비례감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색난의 마지막 기년명 불상으로 신앙으로서 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석조여래좌상



송광암 오층다각석탑



송광암 입구에 위치한 석조 인양상



김장울력을 마치면  
본격적인  
송광사의 겨울이  
시작된다.  
한바탕  
흥겨운 잔치처럼  
모든 대중들이  
한데 모여  
김장울력을 한다.  
김장김치가 익어가듯  
갑오년 동안겨  
대중스님들의 공부도  
익어갈 것이다.

# 취학통지서

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7살인데도 우리 부부에겐 항상 철없는 귀염둥이어서 무심결에 받은 취학통지서가 낫설기만 했다. 어느새 훌쩍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적응할까 걱정도 들었다. 취학통지서를 바라보니 문득, 결코 짧지 않은 아이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통지서는 우리 곁에 불현듯 찾아 왔다 사라져 간 작은 역사였다.



막내에게 취학통지서가 나왔다.

7살인데도 우리 부부에겐 항상 철없는 귀염둥이어서 무심결에 받은 취학통지서가 낫설기만 했다. 어느새 훌쩍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적응할까 걱정도 들었다.

취학통지서를 바라보니 문득, 결코 짧지 않은 아이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초가을이었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 낮에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작은 고추를 단 영락없는 사내아이였다. 눈도 부리부리하고, 무엇보다 가슴 한 쪽에 문신처럼 박힌 작은 반점이 나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첫 딸을 받을 때는 직접 땀줄을 자르며 눈물을 흘렸는데, 둘째 때는 환하게 웃으며 편하게 땀줄을 잘랐던 것 같다.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무럭무럭 잘 컸다. 걸음마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좀 늦긴 했지만, 돌을 지나면서 걷기 시작했고, 웅얼거리던 발음도 점점 또렷해졌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기관지염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 외에는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자라왔다.

뽀로로를 좋아했고, 타요 버스를 갖고 놀았으며, 레고 키마에 빠지더니 요즘은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에 심취했다. 목욕할 때 파워레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을 매우 즐기지는 않지만, 가끔 나와 공차는 것을 즐겨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지켜본 아들의 삶이다.

유아에서 아동의 길에 들어선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다.

다들 그래왔던 것처럼 아이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년을 지나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진입하는 아이가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할까? 승자독식,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굳건히 지키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조그만 취학통지서 한 장이 갖는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인생의 ‘통지서’는 누구에게나 불현듯, 느닷없이 받게 된다. 취학통지서를 시작으로 성적표, 합격통지서, 입영통지서, 졸업증서 등 수많은 ‘통지서’는 항상 인생의 ‘변곡점’이 됐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어엿한 성인이 됐으며, 합격 통지서를 받고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었다.

통지서의 종류에 따라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통지서는 우리 곁에 불현듯 찾아 왔다 사라져 간 작은 역사였다.

처음 받아 본 취학통지서가 설렘과 희망을 주듯, 앞으로 아이가 받을 통지서에는 항상 좋은 메시지만 담겨 있으면 좋겠다.

# 세계를 정복한 영웅들이 이룬 대몽골의 불교

김선정 | 몽골전통미술원 부원장



금강살타아축여래 金剛薩埵不動如來, 악쇼바(몽골어), Vajrasattva-Akshobhya.  
17 세기 몽골의 천재적인 예술가이며 영적 스승이었던 자나바자 작품. 동으로 주물 제작하여 금으로 도금함.  
자나바자의 불상들은 밀교미술의 과학적인 도상비례론을 정확히 실현하여 불보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Zanabazar Fine art Museum collection, 사진발취 : (MONGOLIAN SCULPTURE) Author : N.Tsultem ,Photo :  
T. D. Sugyama, State Publishing House, Ulaanbaatar.

필자는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가 세운 미술 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몽골인 남편과 울란바타르에 몽골불교미술대학(1993)과 몽골전통미술원(1996)을 설립하여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몽골 불교미술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몽골불교미술대학이 복원하고 제작한 천여 점의 미술품들과 기적처럼 남겨진 몽골의 고미술품들 중에서 대표적 작품과 걸작들을 추려서 대몽골의 불교와 미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몽골의 불교와 미술의 우수성의 기원은 말을 달리며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던 기마민족의 스피드와 파워이다. 베이징에서 수도인 카라코람까지 불과 2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역마제도의 무시무시한 속도는 곧 파워였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광범위한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종교와 첨단문화들을 신속하게 접하면서 동시대의 정착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았다. BC 3세기에 인도로부터 직접 수용하여 발전시킨 불교문화를 이미 누리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없이 흘러들어오는 불교를 수용하던 정착민들과 달리 몽골은 각처의 다양한 불교들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몽골불교미술대학 제 1기 학생들과 필자(왼쪽에서 네번째)

# 명상의 의미

인경스님 | 목우선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석가모니불 釋迦牟尼佛 삭장차닥치(몽골어) Shakamuni  
푸레바트 김선정 학생들과 공동제작 1996-2000, 몽골전통 캔버스에  
한국 탕화안료, 중앙 석가모니 부처님 앞 오른쪽에 사리불 왼쪽에 목건련.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의 8대 사건을 상징하는 8개의 탑으로  
둘러싸고 있다. 사슴은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신 녹야원을  
상징한다. 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물이 흘러내려  
넓어지는 것은 불법이 갈수록 창성함을 상징한다.  
물위의 보석들은 맑은 물에 깃들어 살며 불법을 받들고 보호하는  
나가(웅)들을 상징한다.

정보와 경제의 대국이 가장 우수한 불교로 최종 선택한 것은 대승불교인 밀불교였다. 밀불교는 영원하고 온전한 푸른 하늘, 흑흑탱그리를 섬기는 몽골의 토속신앙과도 쉽게 조화했다.

자신들의 삶에 가장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 우주의 위대한 힘을 알고 있던 몽골인들의 사유 방식은 무리 없이 불교적으로 전환되었고 생로병사와 의식주, 모든 생활의 관습과 풍습을 불교로 물들이며 풍요롭게 발전하였다.

몽골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세계를 정복한 영웅과 전사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따라 출가를 했다. 왕과 왕자들이 출가를 하고 갈수록 더 많은 전사들이 무기를 던

지고 갑옷대신 붉은 승복을 입었다. 사람을 살상하던 전사들이 <일체 생명을 고통에서 해방 시키겠다> 는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모든 남자들이 세계 최강의 전사들이었던 나라, 그 남자인구 3명 중에 한 명이 내면의 전사인 스님이었던 동화 같은 불교나라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공산화 이전의 몽골이다.

김선정 몽골전통미술원 부원장  
전 몽골불교미술대학 교수, 홍익대학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무형문화재 48호 이 만봉 스님께 태고종 봉원사에서 한국탱화 수업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정부 미술학교 상계예쉬 스님께 티베트 불화 수업  
티베트 규도 밀교대학 게쉬 썸덴 스님께 입체 만다라 수업

요즘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이 많다.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넘쳐나는 명상 프로그램들로 혼란스런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마음공부를 ‘참선’이라고 말해왔다. 어떤 이들은 참선공부가 진짜 깨달음의 길이고, ‘명상’은 깨달음이 없다고 애써 무시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참선공부는 일부 전문집단의 전유물로 대중적이지 못한 자기들만의 공부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명상 붐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논의이다.

참선과 명상은 정말로 서로 다른가? 참선(參禪)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선에 참여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의 의미로 더 잘 사용한다. 여기서 핵심용어인 ‘선’이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그 이해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선이란 혼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선정의 의미이다. 이것은 선이란 용어의 어원에 충실한 초기 불교적 관점이다. 선이란 용어는 주지하다시피 원어가 jhana(팔리어), dhyana(범어)이다. 이것은 음역하여 선나(禪那)와 의역하여 정(定)으로 번역되었는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에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이란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선이란 선정에 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둘째는 대승불교의 관점이다. 선이란 활발한 지혜를 의미한다. 화엄교학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던 종필은 전통강원의 교재이기도 한 『절요』에서 선이란 선정과 지혜의 통칭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선은 단순하게 선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혜의 작용을 포함한다. 우리가 참선공부를 한다는 말은 새의 양 날개처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말한다. 정혜쌍수(定慧雙修)나 성성적적(惺惺寂寂)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선이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적적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간화선의 입장으로 화두를 간하여 깨달음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때 선은 화두를 참구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고요함에 들거나 지혜의 작용에 근거하지만, 화두참구는 선문답에서 보여준 인간의 본성, 본래면목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고요함과 지혜의 작용은 특별한 마음현상(別境心所)이다. 하지만 화두선은 마음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자리(心地)에 초점을 맞춘 공부법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선이란 용어는 점차 그 의미가 변천하여 왔다. 일상에서 참선이란 말은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적인 실천 수행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참선’이란 말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전후 맥락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상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이다. ‘차분한 마음’으로는 첫 번째 선정의 의미와 연결되고, ‘깊이 생각함’은 두 번째 지혜의 작용이나 세 번째 화두의 참구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선과 명상은 서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팔리어 ‘jhana’, (범어, dhyana)를 중국식으로는 선<sup>禪</sup>이지만, 영어권에서는 ‘meditation’이나 ‘contemplation’이란 용어로 번역한다. 오늘날 명상이란 용어도 여기서 유래된 말로 ‘집중<sup>concentration</sup>명상’이나 ‘통찰<sup>insight, mindfulness</sup>명상’이 그 좋은 사례이다.

역시 참선<sup>參禪</sup>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의 일본식 발음 젠<sup>zen</sup>을 사용하여 ‘zen meditation’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간화선의 경우는 ‘hwadu meditation(화두명상)’이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중국식 번역으로 ‘선<sup>禪</sup>’이나 ‘참선<sup>參禪</sup>’이란 용어가 영향력을 주도했지만, 근래에는 (아마도 필자가 느끼기에는 1997년 IMF이후로) ‘명상’이란 용어가 대중에게 더 잘 알려져 통용되고 있다.

사띠<sup>sati</sup>란 어떤 의미인가?

아주 오랫동안 사띠<sup>sati, 念</sup>는 불교명상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용어이다. 위빠사나의 남방수행 전통에서도 그렇고, 동북아 간화선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시하였다. 지금까지 현대적 의미의 사띠<sup>sati</sup> 논쟁은 2차례 있었다. 2000년에 일어난 1차 논쟁은 사띠 수행은 어떻게 가능한가(일상의 삶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높은 수준의 선정에서만 가능한가)를 놓고 논쟁을 했다. 반면에

2차 논쟁은 2010년에 있었고 외적으로 번역의 문제(알아차림, 혹은 마음챙김)였지만, 실제로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분야에 적용하면서 그 적절성에 관한 문제였다. 전자의 논쟁이 불교학계 내부의 논쟁이었다면, 후자는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과 대응과 관련된 대중적인 논쟁이었다.

명상이 현대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힐링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회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사띠<sup>sati</sup>라는 용어는 Mindfulness라는 영어 번역어와 함께 핵심적 키워드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사띠 명상수행이 불교계의 전유물만이 아닌 의료계,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계나 일반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심성을 계발하는 보편적 술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재음을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띠<sup>sati</sup>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기억<sup>memory</sup>’, ‘주의<sup>attention</sup>’, ‘자각<sup>awareness</sup>’이란 말과 함께 한다.

첫째로 사띠<sup>sati</sup>라는 말의 뿌리가 ‘기억하다<sup>smṛ</sup>’는 것임을 상기하자. 명상수행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사찰에서 자주 듣게 되는 염불<sup>念佛</sup>이나 명상센터에서 말하는 아나빠나사띠<sup>Anapanassati</sup>의 경우를 보자. 염불은 부처님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수행을 말하고, 아나빠나사띠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명상이다. 기억은 전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리 혹은 경험된 내용을 잊지 않고 ‘상기’하는 것이다.

둘째로 물론 사띠<sup>sati</sup>는 과거의 어떤 내용을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한 그 내용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염불하는



광주 무각사 주말명상

소리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 자각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늘 항상 지금의 시점이다. 비유하자면, 점차로 사라져가는 종소리의 전 과정을 놓치지 않고 그 대상에 응시하여진 상태가 온전한 주의이다.

셋째로 사띠<sup>sati</sup>는 안개처럼 애매하지 않고 다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명하게 깨어있음의 ‘자각’을 의미한다. 곧 과거의 어떤 내용을 기억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려서, 그곳에 주의를 집중된 자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계발된 순수한 자각은 언어적인 판단이나 분석과 해석이 없는, 그곳에 탐착으로 물들거나 산만함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필자는 사띠<sup>sati</sup>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한다. 그것은 알아차림이란 용어가 ‘기억’, ‘주의’, ‘자각’ 등의 의미를 총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그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두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판단 없이 현재의 시점에서 존재하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이것을 현실의 임상상황에 적용하여 보자. 이를테면 여기에 문이 잠겨있지 않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강박적 장애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에게 ‘알아차림 명상’을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는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 그래서 그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아주 천천히 문을 닫고 잠그는 행동을 하게 한다.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온전한 명상이다. 그런 다음에 아주 천천히 걸어서 방안에 들어와서 자리에 눕는다. 그러면 어떨까?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잠겨있지 않으면 어찌지’ 하는 그 방정맞을 불안한 생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여도, 곧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방금 전에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안심하고 잠을 자지 않을까?



인경스님 송광사에서 현호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에서 간화선연구로 석박사학위 취득. 현재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 전공교수 겸, 한국 명상치료학회 회장.

## 다시 생각하는 ‘힐링’



중현스님 | 월간 『송광사』 편집장

지난 늦가을, 나는 혼자 제주 여기저기를 유랑하였다. 제주의 이곳저곳을 혼자 유랑하는 것은 일종의 도피이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는 감정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싶어지는 그런 현실로부터의 도피.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을 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사실상 해고시키는 그런 현실. 세월호에 자식 잃은 부모가 국회의원의 차 앞에서 무릎 꿇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그런 현실로부터의 도피이다. 그리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이 부여하는 감정들의 과잉 발산과 그로 인해 지치고 날이 서는 마음으로부터의 도피이다.

이런 부류의 피난을 감행하는 이유는 마음을 세탁하고자 함에 있다. 옷을 세탁하는 것은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햇볕과 바람에 뽀송뽀송해지도록 잘 말리고, 또 깨끗하게 다림질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옷을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주는 것이 햇볕과 바람이라면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다. 이를테면 박수기정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아침 바다라든가, 송악산의 석양이라든가, 용눈이 오름의 햇살 받아 반짝이는 억새 능선이라든가, 넓디넓은 채소 밭 사이로 난 호젓한 길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치를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오래 뉘 놓고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다림질하는 것과 같다. 힐링은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힐링은 아름다운 경치를 앞에 두고 오래 오래 멍때리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세탁하며 발길 닿는 데로 돌아다니다가 간 곳 중의 하나가 강정마을이었다. 갈려고 간 것은 아니었다. 올레7코스를 걷다보면 강정마을을 지나게 되어 있다. 다만 마음 세탁하기에 심취해 있던 내가 강정마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이다.

마을이라 하기도 힘든 그 곳은 높게 세워진 공사현장 담벼락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 담벼락에는 현수막, 걸개그림들이 역시 끝도 없이 걸려있었다. 현수

막들은 거센 해풍에 찢겨지기도 했고, 걸개그림은 빛이 바래가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간간히 차만 다닐 뿐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다. 강정은 서부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버려진 마을처럼 황량했다.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흐리고 바람도 거세진 탓인지, 아니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지 오래되어 그런지 이유는 알 길이 없었다. 도피하고자 했던 그 현실, 참예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현실이 거기에 있었다. 도피한답시고 온 곳 역시 알고 보니 할퀴고 찢겨 나간 삶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환상의 섬, 신비의 섬이라는 제주조차 현실의 냉혹함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강정은 전혀 제주답지 않은 지금 제주의 모습이었다. 무심결에 들른 강정마을의 스산한 풍경은 하얀 광목 천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잉크처럼 순식간에 마음을 파고 들어왔다.

일체一切는 유심조唯心造



행복해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다. 더러워지지 않으면 굳이 애써 빨래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네 마음은 담기 불편한 세상일은 담지 않으려 한다. 나와 무관한 일이라면 굳이 애써 마음에 담으려 하지 않는다. 나와 관련된 일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얼마 전, 힐링을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필자는 세상의 고통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고통을 애써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 그래서 자신과 사회의 고통을 기만하는 것이 힐링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불편하고 거북한 진실을 피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너 나 할 것 없이, 이것 저것 할 것 없이, 서로의 경계랄 것도 없이, 뒤엉켜 하나인 것. 그래서 애초에 하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마음과 세상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니 일체一切는 유심조唯心造인 것이다. 하나랄 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힐링’ 해야 한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남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남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내 마음도 고통스럽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거북한 것은 거기에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아픔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이전의 문제이다.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픔을 증오로 키워서도 안 된다. 아픔은 자비로 감싸 안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주 자주 마음을 벌레 널어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부지런히 다림질해야 한다.

## 2014, 달라진 송광사 이모저모

### 진입로 석축 정비

철대문에서부터 다비장 진입로 입구 사이의 구간에는 오래된 석축이 있다. 일제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 쌓여진 이 석축은 낡고 곳곳이 붕괴되어 토사가 흘러내리는 채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까지 커다란 돌이 굴러내리는 등 위험성이 심각하여 긴급 복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다행히 2014년에 일부 구간에 대해 석축을 보수하여 심각한 위험 요소는 감소하였다.



### 수석정 낙차공 정비

수석정은 과거 스님들이 뱃놀이를 즐길 정도로 풍취가 빼어난 곳이다. 그러나 낙차공은 오래 전에 붕괴된 이후 응급처치 차원의 공사만을 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수위조절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찻집 옆 다리에 설치된 수문 역시 작동하지 않아, 최근들어 집중호우시 우화각까지 침수되는 등 서점 옆 낙차공만으로는 치수관리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에 수석정 낙차공을 새롭게 보수하여 수동적으로나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상습 침수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성보박물관 기와 변화

송광사 내에는 70여 채가 넘는 많은 기와 건축물이 있다. 사중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기와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2014년 현재 성보박물관, 선열당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성보박물관 등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국내 기와의 품질이 향상되기 이전에 생산된 기와를 사용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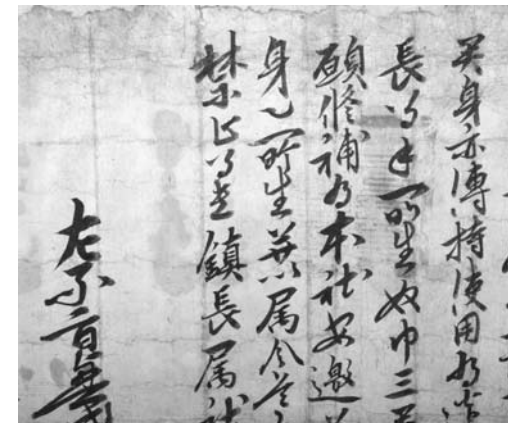


## 송광사 노비문서, 세계적인 희귀자료로 밝혀져

송광사 노비문서는 보물 제 572호로 지정된 고문서다. 송광사 제5세 원오국사 천영스님(1215~1286)의 아버지인 양택춘이 수선사에서 보관 중인 거란본 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노비들을 시주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공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시대 문서다. 고려시대의 문서는 대부분 소실되고 극소수만이 전해진다. 송광사 노비문서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문서로서,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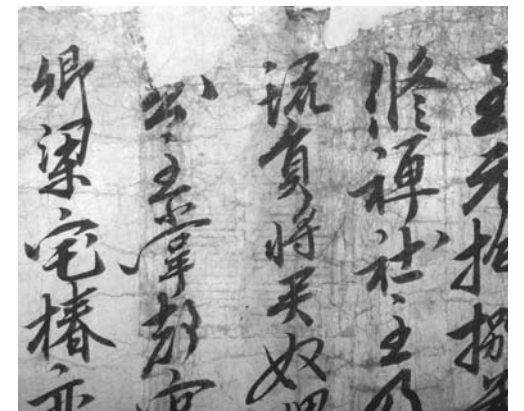


최근 노비문서에 찍혀진 인장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인장은 한문이 아닌 파스파 문자로 '부마고려국왕인(駙馬高麗國王印)'이 전각되었음이 밝혀졌다. 파스파 문자는 원 지원 6년(1269년)에 쿠빌라이 칸이 라마승 파스파에게 명하여 만든 문자로서, 한 세기 정도 사용되다가, 속필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원나라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사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스파 문자가 사용되거나 파스파 문자로 된 인장이 날인된 문서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우리나라에는 송광사 노비문서 외에 부마고려국왕인(駙馬高麗國王印)이 날인된 신우왕지가 있다. 이 문서는 충혜왕 복위 5년(1344년)에 신우를 '신호위보승첩호군'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이번 조사결과, 송광사 노비문서는 충렬왕 7년(1281년)에 제작된 문서로서, 신우왕지보다 60여 년 앞선 자료임이 밝혀져,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2014년 12월 행사

01. 조계총림 임회 개최

12월 4일, 동안거 결제에 앞서 송광사 목우현에서 조계총림 임회가 열렸다. 임회에 참석한 총림임회위원스님들은 종무보고 및 사중 현황을 살피고 조계총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01

02. 불일학당 4기 졸업식

12월 4일, 제4기 불일학당 졸업식이 봉행되었다. 이날 수계식과 함께 31명이 수료했다. 지난 3개월간 수업을 맡은 강사 스님들과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03. 동안거 결제

지난 12월 6일(음 10.15) 포살과



02



03

방장스님의 법어를 시작으로 90일간의 동안거 결제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5일 저녁 정혜사 큰방에 모여서 동안거 기간 중 대중들의 소임을 정하고 중요 일정을 확인하는 용상방을 짰다. 금년 동안거 동안 외호대중 총 130명이 동참하고 있다.

04. 응진전 점안식

12월 9일 오전 9시, 법주 정수스님 등 사부대중이 모여 응진전 점안식을 봉행했다.

05. 금강산립법회회향

제10회 금강산립대법회가 12월 9일 정수스님의 회향법문을 끝으로 49일간의 금강경 법회와 영가기도를 마치고 회향했다. 이



04

날, 참석자들은 선망영가의 위패를 모시고 대웅보전 앞마당에 그려진 법성도를 돌고, 반야용선에 영가 위패와 영가옷 등을 올리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06. 4/4분기 교구총회개최

12월 10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4/4분기 교구총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 종무행정지도 우수수검



05

사찰 표창으로는 행정부문 우수사찰 광주 약사암(주지 운산스님),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포교우수사찰 강원도 등운사(주지 적안스님), 하동 칠성사(주지 단제스님), 우수신행단체에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스님) 등이 선정되었다.



06

07. 21교구 신도 간담회

12월 10일, 제 21교구 신도 간담회가 송광사 템플관에서 열렸다.

08. 동지 울력 및 기도 봉행

12월 21일, 병고액난 소멸과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동지를 맞이하여 저녁예불 후, 정혜사 큰방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동지 새알 빚기



07



08

울력을 했다.

09. 2014년도 문화재보존관리 교육

12월 11일 성보박물관 학예사 일동은 문화재청이 주관한 '2014년도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에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과 행정 등으로 진행되었다. 보존관리



09

교육에서는 송광사의 흰개미 방재와 화엄전의 경판고 환경 등의 사례가 소개되어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보존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뜻을 모았다.

© 1월중 행사

제10회 송광사 새해맞이 Templestay

2015년 새해 1월 1일에도 송광사 신도단체인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송사모)', 불일 불교대학 법우와 함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제31주기 구산선사 추모법회

2015년 1월 3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조계총림 초대 방장이셨던 구산대선사의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이날 행사는 문도인사, 추모입정, 추모사 및 탑돌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말사 소식\_ 1월중 행사

서울 길상사 신정 합동 차례

서울 길상사(주지 덕운스님)는 신정 합동 차례를 2015년 1월 1일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문의 : 02-3672-5945)

화순 유마사 해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스님)는 2014년 12월 31일 ~ 2015년 1월 1일, 1박2일 해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봉행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 061-374-0050)

남양주 봉인사 어린이 겨울방학템플스테이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스님)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부처님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재미있게 보내는 겨울방학이 될 수 있는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2015년 1월 6일 ~ 8일, 2박 3일간 봉행한다. (문의 : 031-574-5585)

일산 정혜사 새해맞이 사찰 순례 안내

일산 정혜사(주지 수산스님)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15년 1월 9일 ~ 10일 1박 2일로 순천 송광사, 완주 위봉사로 해맞이 사찰순례를 진행한다. (문의 : 031-907-8900)



## 룸비니 동산에 앉으니 모두가 선지식

글 정민희 · 사진 윤효식 | 송광사 불일불교대학 1기

2014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송광사 불일불교대학 1기 학생들은 주지스님을 모시고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인도는 내가 가고 싶다 하여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고 건강과 여건이 어느 정도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다.

송광사 사중에서도 신도들과의 인도성지순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다. 경사인 것이다.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가고 싶은 생각만큼

몸도 따라 주리라는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첫째 날, 인천공항까지 버스로 4시간, 홍콩을 거쳐 인도까지 비행기로 9시간, 마침내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했다.

둘째 날은 비행기를 타고 녹야원으로 이동했다. 녹야원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께서 같이 공부하던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한 곳이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탑돌이를 했다. 2,500년이 지났음에도 법을 굴리겠다는 부처님의 굳은 마음이 느껴졌을까? 거사님 두 분은 울컥하며 눈물이 치솟았다고 한다.

어두워져서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신성한 어머니 강이라는 갠지스 강은 심각하게 오염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힌두교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힌두교인들의 믿음 세계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더구나 신성하다고 여기는 물을 집으로 가져가 목욕물에 한 방울씩 타서 목욕한다고 하니, 불자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강 하구에서는 8구의 시체가 타고 있는 광경도 보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두 눈으로 직접 육체를 태우는 것을 보니 무상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한 번 부처님께 귀의했으면 흔들리는 마음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에 지치고 상대와 환경을 탓하기도 한다. 처음 마음 그대로 부처님 진리 법을 행하고 살면 어려운 일도 지나간다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것 같아 참회하는 마음이 절로 솟구친다.

셋째 날은 마하보디 사원으로 향했다. 준비한 금빛가사를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새 가사를 입으신 부처님 모습은 금빛으로 빛났다. 환희심이 절로 났다. 할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 손자도 부처님 가사를 걸치고 예불의식을 드렸다. 먼 옛날에 부처님과 큰 인연이 있었을까? 아이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고 어른이 무색할 정도로 진지하게 예불에 임했다.

노보살님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108배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절하였다. 탑을 돌면서 곳곳에 있는 부처님께 자신의 염주를 갖다 대는 모습도 보였다. 눈물이 난다. 도반의 눈에서도 눈물이 비친다.

주변을 돌아보니 일행들 모두가 선지식이었다. 이번 순례 동안 도반을 통해 배우고 닦아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서있게 된 자신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떠오른다.





서 유래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높고 빼어난 여러 봉우리들의 이름마저 비로봉이니 석가봉, 세존봉, 관음봉 등으로 불리고 있으니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산이다.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건봉사 등 대찰과 수많은 암자가 곳곳에 자리 잡은 그 명산은 지금까지 역대의 고승으로 추앙받는 이들이 애써 찾았던 수행처로도 첫손에 꼽혔다.

그러나 사내가 막상 유점사에 도착했을 때 금강산 도인은 그곳에 없었다. 사내는 유점사 원주에게 석두 선사가 신계사 보운암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뒤 이들이 지나서야 보운암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는 유점사를 떠나기 전 3년 동안 메고 다니던 옛판마저 땀감으로 나 쓰라며 원주에게 넘겨주고 빈 몸으로 걸었다. 그렇게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은 것인데 3년 동안 메고 다니던 옛판에 정이 들었는지 온종일 흥가분하면서도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계사는 외금강 온정리에서 옥류동 쪽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기 519년(고구려 안장왕 1)에 창건된 유서 깊은 도량이었다. 그 신계사 북쪽 기슭에서부터 남쪽 기슭으로는 동석계<sup>動石溪</sup>라는 계곡이 뻗어있다. 동석이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돌, 그러니까 흔들바위를 뜻하며 신계사 계곡의 중요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 바위는 수백 명이 올라가 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지만 주변의 작은 바위에 지렛대를 걸어 움직이면 쉽게 흔들거린다 하여 동석이란 이름을 얻었다.

금강산 도인 석두 선사가 머물렀던 보운암은 동석계에 위치한 신계사의 산내 암자였으나 지금은 터만 남았다. 본래 종인암이라 했으나 석두 선사가 주석하던 시기에는 보운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사내가 보운암 경내에 들어섰을 때 요사의 가운데 방에서 세 스님이 모여 앉아 차담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낸 후 크게 말했다.



새로 복원된 신계사.  
고구려 안장왕 1년(519년)에 창건된 고찰 신계사는 1951년에 전소되어 그 터만 남았다. 그 뒤 남북 불교계가 뜻을 모으고 2004년에 복원불사를 시작해 2007년에 준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효봉 스님은 신계사 산내암자인 보운암에 주석하던 석두 선사에게 출가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곧 두런두런하던 스님들의 목소리가 끊어지는가 싶더니 일제히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와 동시에 옆방에 있던 시자가 재빨리 방문 밖으로 나서며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고저 이곳에 석두 선사가 계시다가에 왔습니다.”

그러자 차담을 나누던 한 스님이 뒷마루로 나서며 물었다. 사내의 짐작으로는 그가 바로 석두 선사인가보다 싶었다. 찰라 사이에 마주 친 눈에서 형형한 빛이 뻗쳐 나오자 사내는 일순 긴장했다.

“내가 석두라는 중인데 무슨 일임동?”

“이 속인은 이찬형<sup>李燦亨</sup>이라 하며 옛장수를 했드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스님의 선성<sup>先聲</sup>을 듣고 제자가 되려구 찾아 왔습니다.”

석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찬형을 살펴보고는 되물었다.

“나는 웬 즘생(짐승)이 찾아왔나 했구마 옛장수 하다가 중이 되려고 왔습메?”

이찬형은 ‘즘생’이란 말에 일순간 의식이 얼어붙는 듯했다. 자신이 분명 옛장수를 했다고 밝혔음에도 보운암을 찾기 이전의 모든 과거를 짐승의 시간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즘생이 아니라 중생<sup>衆生</sup>이라 발음한 것도 같았다. 본래 짐승이란 단어가 중생에 어원을 둔 것이라 하거니와 불가에서 아직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중생이나 짐승이나 서로 다른 게 아니었다.

“기, 기령습네다.”

“방으로 들어옵세.”

잠시 후 이찬형이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석두 스님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두 스님이 목례로 그를 맞았다. 이찬형은 얼떨결에 그들에게 합장반배를 했다.

그가 어정쩡하게 절하고 있을 때 한 객승이 재빨리 일어나 빈자리에 방석 하나를 놓아주었다. 그리고서야 석두 스님이 앉기를 권했다.

“거기 앉습세다. 그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입메?”

방석에 앉자마자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은 이찬형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유점사에서 신계사를 거쳐 오는 길입네다.”

석두 선사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었다.

“유점사에서 왔다 했습메? 유점사에서 몇 걸음에 왔음둥?”

이찬형은 아까 방문 밖에서 즘생이란 말을 들었을 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전의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이 예사로운 것이었다면 이번의 몇 걸음에 왔느냐는 질문은 일종의 시험은 아닐까 싶었다. 이찬형은 보운암을 찾아간 자신의 법기<sup>法器</sup>가 중생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애써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기러니까니 고거이…….”

잠시 머뭇거리던 이찬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세 스님을 가운데에 두고 방안을 한 바퀴 돈 후 제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왔습네다.”

이찬형의 답변이 끝나자 아까 그에게 앉을 방식을 내어준 객승이 박장대소하며 석두 선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허허허! 지금 이 처사의 답변은 10년 공부한 수좌보다 윗길 아니오?”

그때 석두는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그러더니 이찬형을 보면서 물었다.

“거사의 생년은 언제임메?”

이찬형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답했다.

“무자년(1888년)입네다.”

“무자년이면 나보다 여섯 살 연하우다. 그러니까 올해 서른여덟임둥?”

“기령습네다.”

“여태 뭘 하다 이제 왔음메?”

“고저 옛판을 메고 조선팔도를 누리고 다녔습네다. 옛그제 유점사에다 옛판을 아예 벗어놓고 왔습네다.”

이찬형이 대답하자 석두는 이튿날, 그러니까 1926년 음력 7월 8일 아침에 머리를 깎아주겠노라 이르고 옆방의 시자를 불러 명했다.

“오늘 새 불목하니까 들어왔습메. 당분간 방을 함께 쓰라우.”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암자 안팎에서 매미와 쓰르라미가 울기 시작했다. 아마 이슬 맞은 날개를 말리는 모양이었다. 이찬형은 같은 방에서 잤던 나이 어린 사형<sup>師兄</sup>을 따라 법당 상단에 삼배한 뒤 석두 선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선정에 들어있던 그 스승 앞에는 가위와 삭도, 세숫대야 등 삭발도구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훗날 효봉 스님은 해마다 음력 7월 8일이 되면 누더기일망정 깨끗이 빨아놓은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만의 새로운 생일을 자축했다.

《다음호에 계속》

## 송광사 불사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 산문불사 동참자 명단 (2014.11.21 ~ 12.20)

동참시주 : 김정임	서까래 : 권두추 영가	이승훈	전점란 영가	도 리 : 이자훈	돌기둥 : 이영무
박상진	김동우	이은주	정점숙	이명철	
전상곤	노나영	이철민	한경진		주춧돌 : 정학수

동참계좌 국민은행 : 783601-01-481663 (예금주 : 송광사) 우체국 : 501676-01-002408 (예금주 : 송광사)

### 16국사 진영 봉안 불사 동참자 명단 (2014.11.21 ~ 12.20)

류재규	송혁	이상협	이승주	정성만	한정식
-----	----	-----	-----	-----	-----

동참계좌 국민은행 : 783601-01-464262 (예금주 : 송광사) 우체국 : 501676-01-002571 (예금주 : 송광사)

### 관음전 신규 인등회원 명단 (2014.11.21 ~ 12.20)

2643 강경래	1006 김보영	2401 목화유통	1005 윤진용	1136 이봉한	1137 이태호	2501 추소원
2128 김동건	2504 김인숙	1007 윤서영	2415 이미경	2747 이승아	2733 정무빈	
2200 김동규	2199 김인식	1008 윤서준	2414 이미옥	2746 이승엽	2748 정해담	
2576 김동우	2275 김희수	2284 윤지우	2224 이민영	1135 이신국	2436 조형훈	

인등접수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 우체국 : 501676-01-000520 (예금주 : 송광사)

## 월간 『송광사』 정기구독 안내

- 2014년 1월부터 2년 정기구독 회원, 3년 정기구독 회원 및 평생 구독 회원 제도는 1년 정기구독회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이전에 등록하신 회원님들에게는 2014년 12월까지 사보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기존 평생구독회원님께는 2015년 12월호까지 사보를 발송하여드립니다. 계속 구독을 원하는 회원님께서서는 월간 『송광사』 편집실로 연락바랍니다.

### 2014년 사보 정기구독 회원 명단 (2014.1.1 ~ 12.20)

김명자	김정임	김하윤	박순이	성재혁	오승렬	이미숙	이영자	장효정	최문수
김영순	김종남	남창우	박양숙	양경인	오연렬	이부용	이인호	정성태	
김인자	김종식	박미선	백운실	엄기만	이경화	이애란	이준형	차보영	

문의 월간 『송광사』 편집실 061-755-0107 (사보담당) 우체국 : 501676-01-001432 (예금주 : 송광사)

구독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_ [www.songgwangsa.org](http://www.songgwangsa.org)  
 블로그\_ <http://blog.naver.com/songgwang01>  
 페이스북\_ [Facebook.com/SongGwangsa](https://www.facebook.com/SongGwangsa)



한국불교의 상징,  
조계산에 산문<sup>山門</sup>을 건립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가득한 조계산 자락에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산문”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산문 건립불사는 밖으로는 1700여년을  
이어 온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고  
향후 수 천년을 이어 갈 조계종 불교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일이며, 안으로는  
조계산을 지키고 한국불교의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불사 동참안내

동참시주 5만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783601-01-481663 (예금주:송광사)  
우체국 501676-01-002408 (예금주:송광사)

회향일 2015년 12월경

회향일에 산문 준공식을 여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도접수처 061) 755-5306

구분	구좌당		구분	구좌당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주춧돌	8	2,000,000	돌기둥	8	5,000,000
대들보	8	10,000,000	나무기둥	8	5,000,000
서까래	350	300,000	현판(전면)	1	30,000,000
도리	74	1,000,000	현판(후면)	1	20,000,000

●시주자는 현판에 이름을 새겨 부착할 예정입니다.